

## I. 연구의 필요성

우리 사회가 1960년대 부터 급속하게 산업화됨에 따라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되고, 가치관과 사회제도, 가족제도도 많이 변화되고 있으며, 노인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노인은 일단 신체기능장애가 발생하면 만성적이고, 불가역적인 상태로 진전되기 쉽다. 건강관리를 위해 어떤 행위를 취하는 것은 노년기의 연장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수준도 보강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관리를 위한 지식과 정보를 노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제도상으로도 노인보건문제를 다룰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특히 노인층은 피부양의 위치이고, 비교적 가난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고, 쉽게 이용 가능한 시설과 교육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정간호사의 활용과, 보건소 통합보건사업의 활성화, 사회복지관 등에서의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사업전개 등을 통하여 소외되고 능력이 없는 노인 대상자들에게 그들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과 필요한 경우 필요한 치료와 간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간호사는 환자로 하여금 치료를 계속 받고, 건강상태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제공과 행위적 프로그램을 병용한 효과적인 보건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고혈압 환자가 어느 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 조사와 더불어 진료비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삶의 질이 높으면서 진료비가 적게 드는 기관이 가장 이상적인 고혈압 치료기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의 노인성 질환 특히 고혈압의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진료비 분석을 위하여 병원기록과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는 기관에 따른 진료비 차이를 파악하여 가장 이상적인 고혈압치료기관인가를 분석하고, 설문지를 통하여 고혈압에 관한 제반 사항과 고혈압 관리의 지식, 태도, 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진료를 받고 있는 기관별 진료비를 분석한다.
- 2) 조사대상자의 고혈압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파악한다.
- 3) 치료받는 각 기관별 고혈압관리를 위한 고혈압의 지식, 태도 행위를파악한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혈압의 지식, 태도, 행위와의 관계를 파악, 분석한다.

###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부산지역 종합병원과 복지관 제주도내 보건소를 이용하는 60세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분석 방법은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한 후 SPSS/PC\*에 의해 빈도, 평균, 표준편차, Anova, Correlation 등으로 처리하였으며, 모든 통계치는 무응답을 제외하여 산출한 것이다.

### IV 연구결과 및 고찰

#### 1) 진료비분석을 위한 결과

고혈압 환자들의 1년간 진료기관별 평균 총진료비(진찰료+투약료+검사료+방사선료)를 살펴본 결과 병원환자 48,919원, 보건소환자 9,331원 그리고 복지관 환자의 경우 1,014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가정하였던 것처럼 병원, 보건소, 복지관의 순서로 나타났다.

진료기관별 고혈압 환자의 수축기 혈압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복지관이 평균 34.9로 가장 많이 감소되었고 병원환자는 24.8, 보건소 환자는 18.2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복지관의 경우 최고 80까지 감소되었고 병원은 70, 보건소는 50까지 감소되었다. 그런데 병원과 보건소의 경우 20씩 증가한 경우도 있었다.

진료기관별 고혈압 환자의 이완기 혈압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복지관이 평균 21.9로 가장 많이 감소되었고 보건소 환자는 12.8, 병원환자는 12.2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복지관의 경우 최고 81까지 감소되었고 보건소는 40, 병원은 30까지 감소되었다. 그런데 병원과 보건소의 경우 10씩 증가한 경우도 있었다.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의 변화(감소)와 진료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예측 가능한 것처럼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의 변화는 .8048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들 혈압의 변화와 진료비와는 각각 -.1483과 -.1708를 역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혈압이 많이 감소되면 될 수록 진료비는 적게 든다고 볼 수 있다.

#### 2) 고혈압관리의 지식, 태도, 행위 분석을 위한 결과

보건소 이용자 45명, 사회복지관 이용자 46명 병원이용자 25명 총 116명이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남자가 31명, 여자가 85명이며, 평균연령은 70.79세였다. 교육정도는 무학이 가장 많았으며, 의료보장 형태는 지역의료보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의 경우를 보면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평균병력이 3.84년이며, 보건소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며, 고혈압외의 타 질병유무에 대해서는 있는 경우가 41.7%이며, 구체적인 질병으로는 근골격계 등 노인성 질환이 53.3%로 가장 많았다.

복지관 대상자인 경우는 고혈압의 평균병력은 6.29년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관 선택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거리가 가까워서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고혈압외의 타질병유무에 대해서는 있는 경우가 71.7%이며, 구체적인 질병으로는 근골격계 등 노인성 질환이 45.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인 경우를 살펴보면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평균병력은 10.63년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연구대상 모두 앞으로 병원에서 고혈압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 병원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약효가 확실하기 때문이라고 나타나고 있다. 고혈압의 타질병유무에 대해서는 있는 경우가 45.8%이며, 구체적인 질병으로는 근골격계 등 노인성 질환이 45.5%로 가장 많았다.

보건소, 사회복지관, 병원 3그룹간에 고혈압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그룹은 복지관으로 30.32이며, 고혈압에 대한 태도는 보건소가 36.81로 가장 높았으며, 고혈압관리의 행위에 있어서는 보건소가 역시 3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개 문항 전체에 대한 평균평점은 3.31로 보통이상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고혈압을 관리하기 위한 지식에 있어서는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가 32.53, 여자가 28.03으로 남자가 높아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0.01$ ). 학력( $P<0.01$ )과 경제상태( $P<0.05$ )에 따라서도 고혈압관리의 지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가족과의 동거형태에 있어서는 혼자사는 경우가 26.97로 가장 낮고, 부부만 사는 경우가 31.60으로 가장 높으며, 가족의 동거형태는 고혈압의 지식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P<0.05$ ).

고혈압 관리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치료받는 장소에 있어서는 보건소 대상자가 36.81, 복지관이 34.60, 병원이 37.09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P<0.05$ ),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가 38.10, 여자가 35.81로 남자가 높으며( $P<0.05$ ), 학력과 가족과의 동거형태는 고혈압의 지식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경제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P<0.05$ ).

고혈압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행위에 있어서는 치료받는 장소에 따라서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가 35.46, 여자가 32.56으로 남자가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P<0.05$ ), 나이는 고혈압의 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무학이 31.89, 국졸(퇴)이상이 35.10으로 고혈압의 행위에 있어서도 학력이 높을수록 고혈압 관리를 위한 행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P<0.01$ ). 경제상태는 고혈압의 지식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가족과의 동거형태는 혼자사는 경우와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가 비슷하나 부부만 사는 경우는 36.1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

고혈압의 지식, 태도의 상관관계는 지식과 태도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1$ ), 지식과 행위에 있어서도 역시 상관관계가 있어 지식이 행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1$ ), 태도와 행위에 있어서도 태도가 행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P<0.01$ ).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하여 볼 때,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고혈압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볼 수 있다. 노인들의 고혈압 관리를 위해 여러가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고혈압관리인 특성상 장기간의 관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가정간호에 대한 교육이다. 앞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고혈압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관없이 고혈압의 일반적인 관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각 보건 의료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약물요법 이외에도 노인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가정내에서 고혈압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정내 지도나 가정간호사나 통합보건사업을 통한 노인들의 가정간호사업이 적극 시행 되어야 한다.